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26호

### 체육시민연대칼럼

**한 초등교사의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소고**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발탁

**野 '장미란 차관' 이견... "정치적 소비" "선수는 못해나"**

이범수 서울신문기자

### 청년발언대

**김포FC 유소년선수의 극단적 선택... 계속되는 스포츠계의 비극 막을 방도는?**

이다혜 청년일보기자

### 이영광의 온에어

**"스포츠계 폭력, 학부모들이 허락했다는 말에 놀랐죠"**

이영광 오마이뉴스기자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 스포츠윤리센터

**KUSF-윤리센터, 공정하고 깨끗한 대학스포츠 위해 손 잡았다**

이석무 이데일리기자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참사원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여자 축구선수 히잡 착용금지 문제없다"**

현혜란 연합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한 초등교사의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소고

교육부는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04.10.).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점은 ‘사교육비 절감’과 ‘학교폭력 예방’을 학교체육 활성화의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늘봄학교 운영 지원’과 당면과제인 ‘학교폭력 해결 방안 마련’ 등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체육 정책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은 공교롭게도 ‘학교스포츠클럽’ 도입 시기와 닮아있다.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지금까지 학교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도교사 부족, 활동 시간 확보의 어려움, 시설 인프라 부족 등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2023년은 2주기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2019-2023년)이 끝나는 시점이다. 현재 14년 차 초등교사인 필자는 3주기 학교체육 활성화정책(2024-2028년)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체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이다. 초등학교에서 특정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를 ‘교과전담교사’라고 하며,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교과가 정해진다. 2022년부터 기본계획에 체육전담교사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되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기본계획에 명시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운영 시 ‘체육전담교사 우선 지정’, ‘1-2학년을 제외한 6학급 이상 규모의 초등학교는 체육전담교사 1명 이상 지정 및 운영 필수’ 등 체육전담교사 지정 및 운영 확대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는 기본계획의 명시된 내용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학기 중 휴직 예정자(육아휴직, 병역휴직 등)를 교과전담교사로 우선 배정, 전문성보다는 연공 서열에 의한 전담교과 배정 등의 상황 등에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주당 22시간 이상의 수업시수, 10개의 다양한 교과 담당, 쉬는 시간이 없는 학급 관리 등으로 인해 체육수업 준비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체육전담교사 지정’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체육전담교사의 세부적인 지침에는 체육교육 전문성 확보와 단위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한 책무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이다. 현재 체육과는 유아의 누리과정과 초등학교의 체육과 교육과정 사이에 공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4차 교육과정의 통합교과 신설 이후 초등학교 1~2학년 체육과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즉, 1~2학년의 신체활동은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선행연구는 통합교과에서 의도한 교육목표가 체육의 관점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기본 움직임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신체의 균형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체육교과의 독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의 실제적 운영을 위한 여건 마련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는 단위 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더불어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입 초기, 교육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단위 학교 학생들의 17시간 이상 참여율’을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선정했고, 해당 학생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문서에서 추구하는 이상과는 달리 현장 교사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초등교사는 일과 중 자투리 시간(0교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등)을 확보해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앞서 체육전담교사 확보를 위한 논의에서 기술한 것처럼 담임교사가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지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의 실제적 운영을 위해서는 문서와 현장의 틈새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수업시수 인정,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전담할 인력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수당 마련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부의 학교체육활성화를 추진 기본계획은 그동안 학교체육 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보다 나은 학교체육 3주년 계획을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제도 시행’, ‘초등학교 1-2학년 체육과 교육과정 독립’, ‘학교스포츠클럽 실제적 운영 여건 마련’ 등이 요구된다. 평생 체육의 기틀 마련이라는 학교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학생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학교체육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 野 ‘장미란 차관’ 이견... “정치적 소비” “선수는 못 하나”

‘역도 영웅’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엘리트 선수 출신 차관임명 자체만으로 자질 시비를 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는 체육행정 1인자로서 리더십과 능력”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장미란 차관이 지금까지 체육계 비리척결 등 한국체육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아쉽게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체육계의 산적한 현안과 갈등을 풀 리더십을 보여준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2019년 심석희 선수 미투와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으로 체육계와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때도 장미란 차관은 침묵했다”며 “선수 인권이나 체육혁신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현실을 외면해온 선수를 체육계 공정과 상식을 위해 발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윤희 문체부 2차관 인사를 거론하며 “최윤희 선수에 이어 장미란 선수 같은 스포츠 영웅들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이번 차관 인사에서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발탁을 제일 탁월한 윤석열 인사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장미란 2차관은 역도선수로 애국을 했고 은퇴 후에도 대학 교수로, 사회 봉사도 계속했다. 역도 선수가 체육 담당 차관을 왜 못하나”라고 반문한 뒤 “바흐 IOC위원장은 왜 괜찮나”라고 물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펜싱선수 출신이다.



# 김포FC 유소년선수의 극단적 선택... 계속되는 스포츠계 비극 막을 방도는?

지난해 4월 27일 김포 FC 유소년 선수가 지도자들의 언어폭력,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 발생 이후, 김포FC에서는 1년 동안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 거쳐 해당 구단 지도자들에게 선수단 분리조치와 징계 처리를 통보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공론화가 된 후에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서 나섰다.

지난 2020년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스포츠 인권 전문 관리기관이 출범해 스포츠 인권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개선책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스포츠 인권 참사를 막기에는 부족하다.

현재까지도 일선 지도자들의 경우 인권보다는 경기력 향상과 성적 위주의 팀 운영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인권 침해 시 적용할 신고 절차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인권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폭력, 성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 지도자 검증기준을 마련 지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포츠혁신 4년 ①

인권 사각지대 '학교 밖 합숙소'

# “스포츠계 폭력, 학부모들이 허락했다는 말에 놀랐죠”

2019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조재범 전직 국가대표 코치가 3년여간 성폭행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조 전 코치는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 정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엘리트 스포츠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건 없다.

지난 6월 <뉴스타파>는 이를 3차례에 걸쳐 '스포츠 혁신 4년'이란 이름으로 기획 보도했다. '스포츠 혁신 4년'은 지난해 김포 FC 유소년 축구단에서 활동하다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 모 군 사건을 중심으로 스포츠 내 끊이지 않는 폭력 문제를 짚었다.

취재 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6월 28일 <뉴스타파> 오대양 기자와 김용현, 최윤정 기자를 서울 충무로역 근처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만났다.

- '스포츠 혁신 4년' 기획보도를 마친 소회가 궁금합니다.

**오대양 기자(이하 오):** "<뉴스타파> 저널리즘스쿨을 수료한 1기 펠로우들과 함께 추진했던 프로젝트고요. 젊은 펠로우 기자들이 현장을 누비면서 같이 만들어 낸 성과물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최윤정 펠로우 기자(이하 최):** "저는 원래 스포츠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취재하면서 새로 알게 된 부분도 많고 생각보다 재밌어서 좋았어요."

**김용현 펠로우 기자(이하 김):** "마무리는 했지만 계속 스포츠 분야를 지켜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스포츠계에선 여전히 폭력, 불법 합숙소 운영, 불법 찬조금 모금 같은 일들이 관행적으로 일어나요. 지난주에는 프로 축구 2부 리그 안산 그리너스 임종현 감독이 선수 선발 비리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거든요. 이런 일들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감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2019년 성폭행 피해가 알려지며 스포츠 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짚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오:** "저희가 먼저 주목했던 건 학생들 그리고 유소년들의 인권 문제였습니다. 당시 학교폭력 문제가 주 현안이었는데, 저희가 조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중에 탐사보도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있을지 기자들에게 주문했었어요. 공통으로 스포츠 분야에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 사례를 취재하고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 원인이 뭔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갔어요. 저희가 취재에 착수했을 때 이미 김포 FC 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도 넘는 시점이었어요. 그것부터 복기를 시작했습니다."

## 허술한 법과 관리-감독 피하려는 사람들

-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정 모 군 사건은 어떤 건가요.

**김:** "작년 4월 김포 FC 18세 이하 팀에 소속된 학생 선수 정 모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망 직전 남긴 글에 코치진의 언어폭력이나 동료 선수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글을 기반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했어요. 조사 결과 중학교 팀 동료 1명이 정 군을 괴롭힌 사실과 김포 FC 18세 이하 팀 코치진의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됐어요. 그중에서 저는 합숙 문제를 특히 주목했어요. 합숙은 코치진의 24시간 선수 규율, 선후배 사이의 군기 등으로 오랫동안 폭력의 근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에요."

- 정 모 군이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전체 학생의 휴대폰을 일주일간 압수했다던데.

**김:** "규칙을 어겼다면 혼자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본보기로 모든 선수의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친구들의 미움을 샀죠. 개인으로서는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고요. 피해자 부모님이 이 부분을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학교 밖 운동부라고 볼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규제하는 '스포츠클럽법'이 있어요. 스포츠클럽도 상시 합숙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해야만 이 규제를 적용받거든요. 스포츠클럽 대다수가 관리·감독 대상이 되기 싫으니 등록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법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다음 장 계속

- 그렇다면 학원으로 분류가 되나요?

**김:** "학원도 아니에요. 스포츠클럽은 운동을 가르치는 학원인 셈인데도요. 그래서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 교육부에 '학원법을 개정해서 체육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어요. 그러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였는데,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은 개념이 달라요. 체육시설법은 시설에 대한 법안이에요. '운동장을 운영할 때 시끄럽지 않게 해라', '골프장을 어떻게 운영해라'는 식이죠. 학원법은 교습자가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학생을 숙박시킬 땐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한다든지 등 학원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부가 권고안을 반려했을 때 인권위원회 내부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늘어나는 학교 밖 운동부들, 징계도 소용없다?**

- 2019년을 기점으로 학교 밖 운동부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요?

**김:**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전문가들, 학부모들과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면, 첫 번째는 학교 운동부가 사건·사고를 워낙 많이 일으켜서 교장 선생님이 운동부를 꺾으려워해요. 학교 밖에서 일종의 재창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스포츠 저변 확대 정책과 맞물린 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대회에 참가하려면 학교 운동부로 자격을 갖춰야 했다면, 지금은 스포츠클럽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많아졌어요."

- 2018년 2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 유소년 축구팀에서도 폭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가해자인 감독은 남고 피해자만 소속팀에서 나와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 "우선 성폭력이나 다른 학교폭력 사례에서처럼 결국은 권력 때문이죠. 스포츠클럽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권력 격차가 크고 그 때문에 폭력도 발생할 수 있었던 환경이에요. 피해자가 문제제기로 구제받을 수 없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 학교 운동부였다면 상황은 달랐을까요?

**최:** "만약 학교 운동부였다면 교장 선생님, 체육 선생님 등 피해 학생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다른 주체도 있죠. 반면 클럽은 내부의 최고 권력자가 가해자인 감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외부 개입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상황이 내부에서만 정리되고, 피해자는 그만두고 가해자는 남게 된 것 같아요."

또한 학교에 소속된 지도자들은 문제를 일으키면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클럽 지도자에게 대한축구협회가 징계를 준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늘 부족하거든요. 모든 현장에 가서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징계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고 학부모들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훈련 현장이나 경기 현장에서 징계받은 지도자가 나타나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 스포츠혁신위는 1년에 걸쳐 7개의 권고안, 52개 세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권고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거든요. 각 부처 차관급 관료들도 같이 논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전 문재인 정부까지는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에도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주요 사안에 대해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절차적인 부분은 현 정부도 잘 지켜왔고 권고안 재검토에 대한 근거도 제시했어요. 그렇지만 권고안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게 아니라, 촘촘하게 이어져 있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었고,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죠."

-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김:** "스포츠계를 감시하는 언론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뉴스타파>에서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스포츠 독립 매체가 생기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스포츠 매체에 종사하고 계신 기자님들 중에 스포츠 분야의 어두운 부분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널리즘스쿨부터 독립 매체 창간까지 문이 열려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최:** "감독이 학부모들의 85%의 동의를 받고 체벌했다고 해명해서 놀랐어요. 아직도 중학생 아이들을 체벌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폐쇄적인 스포츠 현장의 시각이 (현실과) 다르다고 느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우리 사회 저변에 양태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득권 중심의 정책,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곳곳에서 변주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뉴스타파>가 앞으로도 역할을 많이 해나갈 테니 후원 많이 해주세요."

# KUSF-윤리센터, 공정하고 깨끗한 대학스포츠 위해 손 잡았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스포츠윤리센터(윤리센터)와 손을 잡고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하고 깨끗한 대학스포츠 환경 구축에 앞장 선다.

KUSF와 윤리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윤리센터 7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우 KUSF 회장, 이은정 윤리센터 이사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더 공정하고 깨끗한 대학스포츠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중점 내용으로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보 공유 △대학 운동부 학생 선수, 지도자 등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 교육 및 홍보 △양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책, 연구, 조사 활동 세미나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조명우 KUSF 회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양 기관이 스포츠윤리와 인권에 관한 조사, 교육, 제도개선, 홍보 등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해 미래지향적 대학스포츠 환경을 구축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은정 윤리센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 운동부에도 공정하고 민주적인 스포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상호협력하에 공정하고 깨끗한 대학스포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여자 축구선수 히잡 착용금지 문제없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이 29일(현지시간) 여자 축구 선수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프랑스 축구협회(FFF)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참사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FFF가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충돌과 대립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경기나 스포츠 행사에 중립적인 복장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참사원은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또는 노동조합 소속을 보여주는 표식이나 옷을 금지한 FFF의 조치는 적절하고 균형 잡혀있다"며 이를 뒤집어달라는 프랑스 인권연맹(LDH) 등의 요청을 기각했다.

국참사원은 "선수의 안전과 경기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복장과 장비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FFF의 책임"이라며 "이를 위해 의견과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히잡을 쓰는 여성 축구 선수들로 꾸려진 '레 이자비즈'(Les Hijabeuses)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AFP 통신에 이번 결정은 다양성, 다원주의에 기반하는 프랑스 사회 결속력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FFF 측은 국참사원의 판결에 주목한다면서 "프랑스 공화국과 시민적 가치,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헌법에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라이시테'(비종교성) 원칙이 명시돼있고,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정부 기관에서는 방문객을 제외하고 히잡 등 종교적 색채를 띠는 복장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참사원 판결에 앞서 제랄드 다르마넝 내무부 장관은 "축구를 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종교적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2024 KBO 신인드래프트 지명 참가 신청 접수

<https://vop.co.kr/A00001635614.html>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3년 상반기 직장운동부 직무교육 개최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 idxno = 1200436>

"엉덩이가 탕탕하네"... 기아차 화성공장 스포츠센터, 여강사에게 발톱까지 깎게 해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 no = 753941>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스포츠윤리센터 업무협약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 art\\_id = 202306290851003&sec\\_id = 530101&pt = nv](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 art_id = 202306290851003&sec_id = 530101&pt = nv)

•부산시체육회, 부산 실업팀 선수단 스포츠 인권교육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ud = 20230628000791>

직장운동부 인권증진 향상 '직무교육'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 key = 20230628010005167>

대한체육회, 2023 스포츠인권 우수사례 공모

<https://www.inews24.com/view/1608867>

[주간政談<상>] '역도 영웅' 장미란, 문체부 차관 '화제'...추천인은?

<https://news.tf.co.kr/read/ptoday/2027665.htm>

[길벗 따라 생활건강] 골프, 운동 효과 있을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 idxno = 60722>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